12차시
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배우는 기업혁신과 성장

학습 내용

1. 박물관이 살아있다
2.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다
3. 변화와 혁신으로 한계를 극복하라

1. 박물관이 살아있다

- 미국 자연사 박물관은 뉴욕의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박물관이다. 이루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소장품들로도 유명하지만, 정작 자연사 박물관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**소장품들을 관람객이 가장 가까이에서 편하게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**이라는 점이다.

- 관람객들이 편하게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, 박물관이 세워질 때부터 국가 주도가 아닌 **민간 주도로 설립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 확장**되면서, 다른 미술관 또는 박물관과 달리 조금은 다른 운영방식이 하나의 관람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발전, 변화하여 왔다.

2.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다

- 한때, 세계무대를 호령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시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. 그들 중에는 한때 '혁신의 아이콘'으로 칭송 받거나, 'OOO를 벤치마킹 하라'는 류의 책들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**배우기 열풍의 주인공이 되었던 기업들이 즐비**하다.

- 그들이 실패한 까닭은 **과거 자신들의 성공 경험에 도취되어 환경의 변화에 점차 둔감**해 지고, **조직 내외부의 변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**이다.

3. 변화와 혁신으로 한계를 극복하라

- 늘 세상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**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편하게 접근하여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**해왔던 자연사 박물관과 달리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변화하지 모하고 도태된 기업들이 많다.

- 초일류기업의 부진과 몰락을 '레드퀸 이펙트', '공진화', '경쟁력의 함정' 등과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는 하는데, 한때의 강자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**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도태되어 버리는 현상**을 말한다.